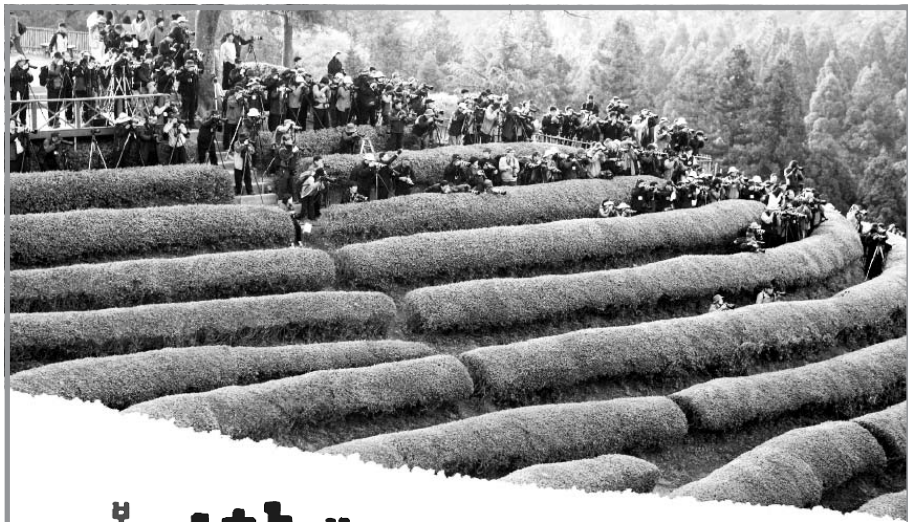


전 남



보성다향제

5월 4~8일 차밭 일원

국내 최대규모의 녹차축제인 '보성 다향제'가 오는 5월 4일부터 8일까지 보성 차밭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 37회를 맞는 보성 다향제는 '녹차의 향연! 삶의 여유속으로'를 슬로건으로 열린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차 만들기와 찻잎 따기, 찻차 무료시음, 다례시연, 녹차음식 만들기 등 인기 있는 차 문화 행사가 열리고, 녹차사진 촬영대회와 녹차 골프대회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녹차요리 발굴과 전문가 육성을 위한 녹차요리 경연대회, 녹차

팔씨름왕 선발대회, 가족과 함께 오붓한 차밭 나들이 등 많은 체험행사가 펼쳐진다.

또 세계 다문화음식, 녹차 시식회 등 녹차를 이용한 먹거리 행사도 준비 중이며, 외국인 전용안내소를 설치해 해마다 증가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개관한 '한국차박물관'은 축제 기간 특별 전시회 등을 열어 관광객들이 차의 모든 것을 보고,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수준 높은 문화프로그램도 선보인다.

/동부취재본부=선승근기자 sun@

봄날 축제들 기대되네

'제13회 담양 대나무축제'가 오는 5월 3일부터 8일까지 담양 죽녹원과 관방제림 일원에서 '건강대숲, 녹색섬표'를 주제로 열린다.

올해 축제는 주민 5000여명이 담양 12개 읍·면의 특산물에 상징하는 대형 조형물을 만들어 풍물패와 어우러지는 대나무 길놀이로 시작된다.

특히 올해에는 각 읍·면에서 길어온 물을 '호남의 젓갈' 영산강 최상류인 관방천에서 흘러보내는 '영산강 시원(始原) 죽향(竹香) 합수식'도 마련된다.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로수 길로 뽑힌 바 있는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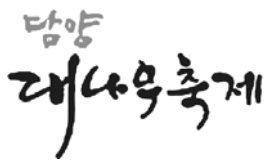
길을 비롯해 죽녹원 '대숲 웰빙 걷기여행' 등 행사와 시낭송,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등 대나무를 이용한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진행된다.

또 대나무떡볶이 타기, 수상자전거 타기, 활쏘기 등 대나무를 이용한 전통놀이와 대나무 신산업관, 대나무 박물관에서 펼쳐지는 축제물 전시도 좋은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처음으로 운영되는 '대나무 생태환경 체험관'에서는 대나무 숲에 서식하는 곤충을 그림·시와 함께 전시한다.

/동부취재본부=노정훈기자 cjob17@

5월 3~8일 죽녹원·관방제림 일원



장흥 공무원노조 기금 장학금 기탁 논란

郡, 찬반설문 후 '인재육성 장학회'에 1억원 전달
일부 공무원, "명분 없다" 반발... 균등 배당 요구

장흥군 공무원 노동조합(직장협의회) 기금에 대한 '인재육성 장학회' 기탁 논란이 일고 있다.

장흥군과 일부 공무원들이 지난 2002년 5월 군 산하 6급 이하 393명으로 결성된 '공무원노동조합 장흥군지부'가 그동안 조성해 놓은 1억3200만원 가운데 1억원을 장흥군인재육성 장학회에 기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군은 지난 14~15일 이틀간 현재 재직하고 있는 345명을 대상으로 장학금 기탁 찬반 여부를 설문조사 실시, 51% 이상 찬성을 할 경우 곧바로 장학회에 기탁하기로 했다.

군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해 3월 군 자치회 운영위원회(18명)과 부읍·면장(10명)이 참여한 협의회에서 장학금으로 기탁하기로 협의과정에서 거친바 있으며, 7월의 당시 노조간부(9명)들로 구성된 비상대책 위원회에서 설문조사에 따라 장학회에 기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은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어렵사리 적립한 기금을 장학금으로 기탁하는 데는 당초 노동조합(직장협의회) 설립 명분에 맞게 운용돼야 한다"며 추후 노조 재결성 여부 여하에 따라 결정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다른 직원들은 그동안 퇴직(24명)과 전출(24명) 요인이 발생한 만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산하 공무원들에게 균등하게 배당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무원노동조합 장흥군지부는 지난 2002년 결성 이후 회원들로 하여금 매월 본봉에서 1%씩을 노조기금으로 적립해 오다 지난 2005년도 제3기 지부장 이하 집행부 구성을 못해 노조활동 중단으로 자동해체돼 기금만 1억3200만원만 정기에탁 해놓은 상태다.

군은 일부 공무원들과 비대위 측이 설문지에 표시된 번화가 개개인의 찬반 의사 여부를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계기를 해음에 따라 오는 22~24일까지 재설문을 실시한 후 장학금 기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전남 도내 22개 지자체 가운데 장학회를 포함해 진도·장성군 등 3개 군은 공무원노동조합이 결성돼 있지 않다.

/동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순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범시민회의 준비위' 출범

내년에 열리는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다채로운 활동을 벌여나갈 민간단체가 결성됐다.

2013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 범시민회의 준비위는 17일 순천만 자연생태관 세미나실에서 공식 출범식을 가졌다.

이번 시민회의 출범을 위해 강길태 순천 정암대 총장, 김순자 순천여성단체협의회장, 이광하 순천농협 조합장, 정홍준 순천시 주민자치위 협의회장 등 각계 인사 13명이 공동준비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준비를 해왔다.

범시민회의 준비위 관계자는 "그동안 순천만 정원박람회를 놓고 일부 정치권과 지자체가 불협화음을 빚으면서 지역사회의 여론이 분분했으나 정치권·사회단체 및 NGO·민간조직 등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이번 시민회의 출범으로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는 2013년 4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6개월간 순천만 일원에서 '지구'의 정원, 순천만'을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김은경기자 ejkim@



화순향교, 공자 탄신 2562년 춘기 석전대제

화순군 화순향교(전교 배운수)를 비롯한 능주·동북향교 등 3개 향교에서 지난 13일 공자 탄신 2562년 춘기 석전대제가 거행됐다. 석전대제는 공자를 비롯해 옛 성인들의 학덕을 추모하는 의식으로 매년 2월과 8월에 행해진다.

<화순군 제공>

여수산단 무단 설치 관로 집중 단속

여수시가 도시계획선을 무시하고 무단으로 설치된 여수 국가산업단지내 원료수송관로에 대해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17일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산단의 와이엔텍 앞에서 나포 삼거리 일부 구간에 도시계획선 25m내에 설치된 5개사 18개 관로를 적발하고 행정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시는 이순신 대교 개통을 앞두고 도로 확장이 불가피한 상태에서 무단으로 설치된 기존 관로가 도심 흉물로 전락하고 안전 문

제까지 제거돼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도시계획선내에 관로 등 영구 구조물은 지상에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무단설치된 관로에 대해 최종 확인이 끝나는 대로 관원법에 따라 행정조치와 더불어 관로 소유자에게 철거계획을 수립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생물방제센터-친환경인증센터

산류농약 분석 등 업무 협약



전남도 생물산업진흥재단 생물방제센터와 전남 친환경인증센터(주)(대표이사 김원산)는 지난 15일 생물방제센터에서 산류농약 분석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3월 문을 연 생물방제센터는 지식경제부 지역산업진흥사업 일환으로 전남도와 곡성군의 지원을 받아 친환경 생물적 방제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추진했다.

생물방제센터는 전남에서 유일한 5t 규모의 미생물 발효기를 비롯해 각종 미생물 생산시설과 분석장비 등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생물방제센터에는 국내 농업부문 1위 기업인 (주)동부한농을 비롯해 전직·미생물 관련 14개의 입주기업과 (사)미생물연합회, 전남대 현지실현실 등이 입주해 활동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의 약효·약해 시험분석과 농약 잔류성 검사에 의한 농약 시험 연구기관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09년 설립된 전남 친환경인증센터(주)는 지난해 3월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전문인증기관(제 63호), 4월에는 농산물 우수관리인증기관(제 48호)으로 지정받았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와 전남도 주관 거점 인증기관으로 선정돼 지난해 총 456건의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무를 수행했다.

/동부취재본부=김계경기자 kjkim@

"상습 침수피해 벗어나다"

광산구 평동천 배수구 확장

매년 상습적으로 침수피해를 입던 광주 광산구 하산동, 요기동, 유계동 일대 평동천 배수구가 확장된다.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지사장 김행운)는 지난 15일 윤봉근 시의회의장, 광주시청, 광산구청,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평동천 유말공(流末工=배수구) 확장공사 착공식을 가졌다.

광주지사는 사업비 1억8000만원을 투입해 기존 유말공 4개소를 박스암(폭 2m·높이 1.5m) 4개소로 확장할 계획이다.

김행운 광주지사장은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폭우등 일대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영농편의와 농가소득증대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

Real estate advertisement section containing multiple listings for properties in various areas like Daesan, Shinjin, Gwangju, and Gwangju. Each listing includes details like location, size, price, and contact information.